



<http://www.gjiwill.or.kr/>

흥사단에서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입니다.

I Will센터는 서울시 꿈나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인터넷과다사용 및 중독에서 벗어나 삶의 균형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진 I Will 센터 2014년 11월 뉴스레터

광진 I Will 센터 소식 / 11월 활동



1. 서울시 연합 캠페인, 스마트폰 '쉽' 캠페인

11월 1일(토) 11시부터 6시까지 7시간 동안 청계광장에서 서울시 6개 I Will센터 연합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I Will센터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 동시에 건전 스마트폰 습을 위한 인터넷 사용다짐 나무심기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1,350명의 청소년과 시민이 참여하였다.



2. 센터 내 대상별 예방교육, '동화 속 스마트 나라'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유아동을 대상으로 센터 내 대상별 예방교육, '동화 속 스마트 나라'가 진행되었으며 총 관내 유치원 8개 기관 총 433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동화로 알아보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과다사용 증상,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법 O·X퀴즈와 인터넷 지킴이 다짐활동이 진행되어 아이들의 흥미와 호응을 이끌었다.



3. 국외 연수 - 인터넷 중독 예방 선진사례 발표

11월 8일(토)부터 5박 6일 광진, 명지 인터넷중독예방 상담센터가 함께 인터넷 중독예방 선진사례 발표를 위해 캄보디아 국외 연수를 다녀왔다.
캄보디아 돈 보스코 기술학교와, 국립 왕립 대학교 코이카 센터, 캄보디아 이화여대사회복지관등에 방문하여 서울시 I Will센터 소개와 함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사업 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4. 청소년 (초등 저학년) 사회성 향상 집단 상담

11월 12일, 19일, 26일 매주 수요일 광진청소년수련관 3층 성문화교육장과 1층 해봄 강의실에서 초등학교 1~3학년 9명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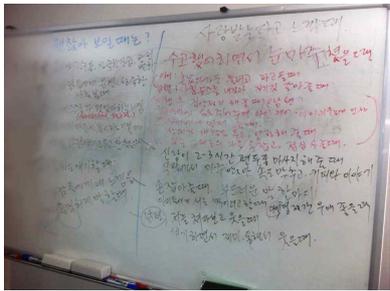
이번 집단상담은 또래 관계성 향상을 주제로 놀이와 미술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전통 놀이, 자연물, 점토 등으로 내담자들의 흥미를 이끌고, 집단 내 모둠 활동을 통해 사회성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5. 서울시 연합 아웃리치

11월 13일(목) 2시부터 8시까지 천호역 및 로데오 거리에서 아웃리치를 진행하였다.

스트레스를 주제로 하여 스트레스 검사, 해소법과 더불어 대안 활동, 스마트폰 건전 사용법을 다루었다. 또한 위기 청소년 발굴을 위한 패트론티도 함께 진행 되었다.



6. 학부모 집단상담 - 분노 다스리기

11월 14일, 28일(화) 광진청소년수련관 3층 성문화교육장에서 학부모 집단상담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8월부터 총 7회기에 걸쳐 진행된 본 집단 상담을 통해 학부모는 자녀와의 심리적인 분리의 중요성을 알게 됐으며 양육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인 피드백을 들을 기회가 되었다. 또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이를 자녀들과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습득하게 되었다.



7. I Will센터 직원 & IVY 자원봉사단 워크숍

11월 14일(금)부터 2박 3일간, 청평 뻘뻘 프랑스에서 I Will센터 직원 워크숍이 있었다.

2014년 사업보고 및 평가를 통해 2015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팀워크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1월 15일(토)~16일(일) 1박 2일 같은 장소에서 IVY 자원봉사단도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연간사업을 평가하고 마무리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8. 서포터즈 보고대회

11월 20일(목) 2시, 서울시민청 활짝 라운지에서 청소년·학부모 서포터즈 보고대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시 6개 센터 청소년·학부모 서포터즈단과 담당자가 모두 함께하는 자리로 한 해 동안의 활동 보고와 활동 우수자 표창을 실시하였다.



9. 솔루션 회의

11월 21일(금)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광진청소년수련관 1층 해봄 강의실에서 솔루션 회의를 진행하였다.
상담과 임상 분야의 전문가 이민식 교수님과 서은경 교수님을 모시고 현재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상담과 임상적 개입들에 대한 지도를 받고, 상담사와 특별치료사가 모두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10. 자문운영위원회

11월 21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광진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2014년도 자문운영위원회가 진행되었다.
2014년 광진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결과를 설명하고 사업의 보완점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받아 2015년 사업 계획의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11. 예방강사 워크숍

11월 25일(화) 대학로에서 2014년도 예방강사 워크숍이 진행되었고 예방강사 12명이 참석하였다.
연극 옥탑방고양이 관람 및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여 한해를 마무리하며 강사들 간의 친목과 소통을 향상시키고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12. 대상별 예방교육

11월 3일(월)~28일(금), 한 달간 관내 초등 40학급, 중고등 5학교에서 대상별 예방교육이 진행되었다.
초등은 6회기 학습 프로그램, 중·고등은 방송강의를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인터넷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건전한 사용 방법을 교육하였다.



13. 외래상담원&동반자 11월 사례회의

11월 4일(화) 외래상담원&동반자 사례회의가 3층 성문화 교육장에서 진행되었다. 공지사항 전달과 함께 사례에 대한 나눔 시간에는 올해 상담 진행 현황에 대한 나눔이 이뤄져 진행과 종결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고, 부모상담 - 자녀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사 간 의견 나눔이 이뤄졌다.
또한 18일(화) 동반자 사례회의가 상담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나눔과 부모상담 병행의 필요성과 직접 찾아가는 상담 환경의 어려운 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14. 특별치료 11월 사례회의

11월 11일(화) 오전 11시부터 한 시간 동안 상담실에서 특별치료 11월 사례회의가 진행되었다.

공지 사항 전달 후 사례 나눔에서는 장기 개입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들에 대한 진행 현황과 의견을 나눔으로 치료 지속이 필요한 이유와 종결이 필요한 사례들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광진 I Will 센터 12월 예정 활동

- 꿈틀이 축제
- 개인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찾아가는 상담, 특별치료 (놀이/미술)
- 청소년 (초등 저학년) 사회성 향상 집단상담
- 청소년·학부모 서포터즈 (광진중)
- 외래상담원(개인상담,가족상담,심리검사)/동반자/특별치료 12월 사례회의 / 평가회의
- 예방강사 평가회의
- 강사 보수교육(사이버범죄 예방교육)